

☐ 홈 > 뉴스 > 전국 > 서울

“두드리세요 !” 푸드트럭에 내 꿈을 싣다 !

마포구, 오는 25일까지 푸드트럭(자동차 이용한 음식판매) 영업자 모집

2017년 08월 23일 (수) 08:44:05 [중부뉴스통신]김만식 기자 ✉ desk@jungbunews.com



▲ 푸드트럭 거리시안

[중부뉴스통신]색다른 맛에 개성강한 메뉴,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한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푸드트럭, 요즘 청년 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많다. 푸드트럭은 나만의 공간에서 꿈꿔오던 미래를 펼쳐볼 수 있다.

마포구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푸드트럭 시범거리에 선정된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모집한다.

푸드트럭 사업은 청년·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(이사장 김영식)이 맡아 운영하게 되며 전액 시비로 총 5천만 원을 지원 받아 진행된다.

공간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맞은편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중앙로 446㎡으로 10대의 푸드트럭이 들어설 예정이다. 연인 간, 가족 간 나들이하기에 좋은 월드컵공원 및 하늘 공원 등 많은 생태공원이 있으며 2002년 월드컵의 성지였던 상암 월드컵경기장 또한 위치해 있어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뿐만 아니라 공항철도가 지나는 길목으로 관광객 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

으며 웰빙 열풍의 자전거 도로 요충지로 여가문화중심 거리를 형성하기에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.

푸드트럭 거리는 단순히 먹거리 운영이 아닌 스포츠와 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으로 허가 면적은 1대당 너비 2.3m × 길이 5m로 11.5㎡이다.

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돼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자로 신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층 시장사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 제출서류는 푸드트럭 영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서약서 등으로 문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.

사업은 총 10대의 푸드트럭 중 일반존(5대)과 특화존(팀) 5대로 구분해 모집한다. 개인은 일반존으로 신청, 특화존은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하는 것으로 5명 미만의 팀으로 구성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.

사업자 선정은 오는 31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mfmc.or.kr>)에 게시될 예정이다.

영업 개장일은 9월 16일 예정으로 푸드트럭 운영은 별도 지정하는 사용 개시일부터 1년 2개월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총 96일간 운영하게 된다. 영업시간은 3월부터 7월까지의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, 9월부터 11월까지의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다.

박홍섭 마포구청장은 “이번 푸드트럭 거리 조성이 새로운 문화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며 “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가는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